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학교나 집에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냥 “확!” 하고 감정대로 행동해 본 적 있나요?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속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고까지 말했지요. 모세는 회막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분노하여 그만 반석을 두 번 세게 쳤습니다. 물은 쏟아졌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험이 잘 안 풀리거나, 친구와 관계가 힘들거나, 부모님께 혼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내가 참고 말씀대로 반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기뻐해 다 같 이

말 씬 봉 독 민수기 20:1~13절 다 같 이

설 교 반석의 물, 하나님의 거룩함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주신 주님 감사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종종감정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실수를 보며, 저희도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
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
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은 왜 모세가 반석을 친 행동을 책망하셨을까요?
2. 나는 언제 내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